영혼이 잘된 자의 한계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영혼이 잘된 자의 한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갖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의 간구라고 하는 점입니다. 범사 형통과 강건함을 사도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간구를 가이오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나를 위한 간구가 내가 추구해야 될 것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간구가 가이오가 영혼이 잘된 자로서 살아가면서 꼭 추구해야 될 것과 일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전제 하에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영혼이 잘된 자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범사에 형통함과 자기의 건강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깊이 들어가 따져보다 보면 도저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범사의 형통함을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한 형통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이상에는…
범사에 형통함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온 마음과 뜻을 기울여서 범사에 형통함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는 영혼이 잘 못된 상태라야 가능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도대체 영혼이 잘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오직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에서 잘된다는 단어는 '유오두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오도오'의 현재 수동태형이에요. 그럼 '유오도오'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가 하면, '이우'라고 하는 접두어와 - 잘(well) 이라는 뜻 - 그리고 '호두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호두스'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게 길을 인도받았다' 즉 '유오두타이'라는 수동태형은 '좋은 길로 인도되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되어졌다는 얘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공중에 있고 공중

위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계시고, 또 승천하신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아래에는 땅이 있어요, 몸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길로 인도되었다는 게 뭐겠어요?
'유오두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길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서 죄와 허물이 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게 죄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육체와 몸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육체가 움직이는 대로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길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육체에 매여서 가게 되는 이런 길은 영혼이 잘되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도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몸이 지니고 있는 오감관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마음이 좌지우지 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땅의 차원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아, 내가 육체에 묶여서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며 사는 삶이 저렇게도 참혹하고 혹독하게 살이 찢기고 피 흘리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저주를 당하며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악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죽는 자들이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육체를 따라 살 때 길을 걷듯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신앙을 결단하는 자들이 길을 걷게 되는데, 맨 처음에 가게 되는 것은 매장되는 겁니다. 땅속에 묻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또 다시 길을 걷는데, 부활까지 도달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승천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내 죄악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부활해 가지고 그냥 이 땅에 마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과 함께 가게 돼서 마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영혼이 잘된 것, 다시 말해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안에서 천국에 가 있게 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천국에 앉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요즘 난리지요. 일본의 미야기 현, 듣도 보도 못한 곳이지요. 처음 듣는 곳이고 저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4500만이 거의 다 미야기 현이라는 말을 처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끼어들어왔어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하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어떻게 그들의 복구에 좀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야기 현이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죽어있었어요.
죽어 있다가 우리 생각 속에서 활발하게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세리로 살고, 어부로 살고, 별 볼일 없는 일들을 하면서 가정에서 생업현장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또 나라와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다는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려서 이 나라를 어떻게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킬 것인가에 온 마음이 다 뺏겨서 이 몸이 처한 대로 육신을 따라 살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겪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는 앞에서 하늘아버지 천국으로 승천하십니다.
실제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애인과 데이트 하다가 애인을 버스에 태워서 전송하면서 보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버스 타고 가는 애인을 따라가듯이 승천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 마음이 천국으로 딸려 들어간 것이고 그 동안 이 세상의 삶에 바빠서 이 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마음이 좌지우지 되면서 살고 있던 상태에서, 그 상태 속으로 천국이 실제로 끼어들어온 겁니다.
요즘 미야기 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실제로 끼어들어온 것처럼…
천국이 끼어들어온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천국, 듣기만 했던 하늘나라가 그냥 실제로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예수님과 마음의 연결의 끈이 끈끈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천국에 대해 우리는 실제적인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독일의 괴팅겐이라는 도시 연세 드신 제 어머니에게 그곳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거기에 가 있을 때는 괴팅겐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머니에게 첫 번째 관심 도시입니다.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큰 관심거리가 한번 가보시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신 독일의 괴팅겐이라는 도시입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가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범사에 형통함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좋은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연합하여 동일시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승천하게 되고 주님이 가계신 그 하늘나라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져 있는 상태가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어느 식당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다보니 조선족 아주머

니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다가 밴쿠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식당일을 하시면서 자리를 잡고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인 남편과 딸아이를 밴쿠버로 데려오는 것이 이 분의 지상과제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남편과 딸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껍데기만 있고 마음은 밴쿠버에 다 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일이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밴쿠버에서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도 기약이 없는데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은 가족대로 온 마음이 밴쿠버로 다 와있어서 도무지 중국에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된 자라는 거예요.
그 남편과 딸아이의 마음이 밴쿠버로 인도된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하늘로 인도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겪은 제자들이 이 땅에 대해 죽은 겁니다. 이게 영혼이 잘된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건강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범사에 형통함에 내 마음이 다 쏟아질 수 있다는 말은 철저하게 승천하신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가있지 않은 그 상황 자체는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님 믿은 후에는 주님의 십자가로 칭의를 받습니다. 죄 사함과 의롭다 함을 받은 다음에 그 의롭다 하는 자신감이 이 땅의 범사에 형통을 위해서 이 땅의 내 건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이상한 형태로 칭의의 자신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는 구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셨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것이고,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범사의 형통을 위해 전력질주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범사에 형통과 건강을 유지하자” 이렇게 되어 버려요.

이건 전혀 영혼이 잘된 자가 아닙니다.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추구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몸이 아직 살아있는데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 자는 하늘에 앉힌바 된 자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무엇을 향해 나타나야 되느냐, 이 땅에서의 범사의 형통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석서 같은 것을 보면 어떤 경우는 '위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정의를 행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이 땅에서 불신 앙인들과는 구분되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공의와 정의와 거룩성 모두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될 것이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같이 올라간 우리의 마음이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정의와 공의와 거룩성의 문제는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와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혼이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거울 같은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됐나 못 됐나 하늘로 인도함을 받았나 못 받았나를 알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시될 수도 없고 훼손될 수도 없죠.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제대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 자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법을 따라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이 땅에서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됐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의 것'은 뭐예요?
분명히 골로새서 3장에 명시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고 해 놓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까봐 괜히 이 땅에서의 정의, 공의 이런 것으로 생각할까봐 '거기는'이라고 명시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거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천국에서 우리의 적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땅 위에서 범사에 형통함을 위해 적극성이 나타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정의나 공의나 거룩성을 위한 우리의 적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라는 인격으로서의 적극성은 천국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위가 '거기'인데 거기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곳이다.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성을 띠는 곳은 우리 마음을 쏟아서 적극성을 띠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 있다 이겁니다, 천국에서 적극적으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의 변화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과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의 대상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대상과 수동적으로 맞이해야 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간구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범사에 형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건 수동적으로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요한의 간구가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수도 없으니까…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승천한 예수님께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도 아내와 엄마 따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밴쿠버에 다 와있는데, 왜 우리는 하늘나라 못갑니까? 주님 사랑한다면서?

자,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사랑해서 영혼이 잘된 자 좋은 길로 인도돼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마음이 올라간 자는 범사에 형통을 추구할 수도 건강을 추구할 수도 없어서 천국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주체적인 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뭘 하느냐?
천국에서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보면 죄 사함 받은 시점과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사후의 천국-그 사이가 비어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은 천국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전부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땅의 것으로 다시 쏠려버려요,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무상통 했다, 내 주머니의 돈을 털어 없는 사람에게 주었다.
박해를 기쁨으로 다 수용했다, 카타콤에 들어가 250년을 살았다. 이게 다 무었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적극적으로 천국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에 형통과 건강을 추구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둘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범사에 형통을 추구하겠어요?
위의 것을 찾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위의 것을 어떻게 찾으며 산다는 말인가?
우리 몸은 아직도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천국의 것을 찾을 것이며, 천국을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말이냐?
궁금하잖아요?

기행문의 원리로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지만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시점부터 사후 천국까지의 사이에서 우리가 천국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을 찾는 원리가 바로 '기행문'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기행문의 원리가 뭘까요?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은 게 기행문입니다.
그럼 이 기행문은 왜 적습니까? 자기가 여행한 지역을 여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여

행에 참여시키려고 기행문을 적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행문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1271년부터 1295년까지 중국을 여행합니다.
여행하고 돌아와서 어느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로 잡히는데 감옥수로 있는 동안에 루스티첼로라고 하는 모험소설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에게 10여 년 동안 중국을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루스티첼로가 받아 적은 것이 동방견문록입니다.
그 당시는 13세기로 아직 대항해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을 때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중해를 넘어 저 동방으로부터 인도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너무 신비롭게 느껴지고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10여 년 동안 여행하며 겪고 체험하고 느낀 것들을 루스티첼로를 통하여 다 기록을 합니다.
유럽인들이 그 책을 환호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신비하게 생각하고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동방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그 여행에 그 현장에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보면, '많은 도시와 요새들 중 중요한 곳은 에르기눌 시이다, 여기서 남동쪽으로 가면 카타이로 가는 큰 길이 나온다… 중략 …이 지방에는 야수가 많이 있는데, 털에 흰 점과 검은 점이 섞여있어 보기에 매우 아름답다.'
이런 글을 보며 그 여행에 마음이 참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이 이 땅에 아직 머물고 있는데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천국에 올라가 하늘에 앉히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적극성을 띠고 위의 것을 찾아내느냐?
바로 예수님의 천국견문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아버지와 천국에서 보고 듣고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겪으시는 모든 것들을 - 주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루스티첼로가 마르코 폴로에게 여행이야기를 듣고 적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보고 듣고 겪으신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래서 천국에 있는 위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하나님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를 느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방견문록이 10여 년 동안 중국을 돌아다닌 겁니다. 너무 신비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국과 비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분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넓고 깊고 굉장하겠습니까?

그 곳을 주님께서 여행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령을 통해 교제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 겪고 체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아니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누락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너무 이 땅 위의 일에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참여해야 될 곳은 천국이고 천국에서 주님의 천국견문록을 통하여 천국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적극성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죄 사함, 내게 필요한 것만 챙기는 거예요. 죄 사함이 내게 필요하니까 챙깁니다. 범사에 형통이 내게 필요하니까 챙깁니다. 죄 사함 때문에 칭의를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마음 놓고 범사에 형통을 챙깁니다. 건강을 마음 놓고 챙깁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라 일을 마음 놓고 챙깁니다. 가정 일을 마음 놓고 챙깁니다.
온통 이 땅의 일에 마음이 다 쳐 박혀 버렸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잘된 상태가 아닙니다. 죄 사함의 특권은 지금 천국에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지금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죄 사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천국을 살다보면 우리 몸이 죽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날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천국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찾아요.
좋은 길로 인도됩니다. 영혼이 잘됐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승천합니다. 주님의 천국견문록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써 주실 때 나타나는 현실적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지금, 지금, 내일 또 지금, 모레도 또 지금, 끊임없이 새롭게 새롭게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아버지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평강이 그대로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새겨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유가 없어요.

범사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근거된 게 아닙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근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갇힌 사건, 많은 매를 맞았다고 했어요.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빛 하나 없는 깜깜한 감옥에…
그곳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뭘까요? 다시금 날마다 죽고,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바울이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날마다 죽는다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연합하면서 몸이 처해 있는 그 감옥의 현실에서 죽습니다. 매장당합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을 마음이 함께 따라 승천하는 거예요. 몸은 감옥에 있는데…

마음이 승천해서 성령이 천국견문록을 써주심에 따라 주님께서 천국을 보고 계신 그 느낌이 그대로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기록된 거죠.
그렇게 몸이 아픈 현실 속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찬송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난 것이에요.
이 지진과 그 지진, 일본에서 일어난 그 지진, 어떻게 이리도 다른 건지…
안타깝지요.

영혼이 잘된 자는 범사에 형통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신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영혼이 잘된 자는 이 땅의 범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내일 생각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는 하늘의 것을 찾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적극성을 띠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가장 적극적인 하늘을 찾는 방법은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는 몸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혼이 잘된 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최우선 되는 영혼이 잘된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된 자는 이 땅에 범사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냐는 내일 함께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길로 우리의 영혼이 인도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오늘도 연합합니다.
온전히 연합되면 그래서 세상에 대해 온전히 죽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가계신 천국에 우리의 마음도 가있게 하시고 주님의 천국견문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